한국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중간언어 실태 분석: 명시적 및 묵시적 구문지식을 중심으로*

이예식 · 진현석
(경북대학교 · 경신고등학교)

Lee, Yae-sheik & Jin, Hyun-seok. (2013). Analysis of the English Interlanguage of Korean 10th Grader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ir Explicit and Implicit Knowledge of Linguistic Forms of Engl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3), 339-361.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what interlanguage state Korean learners of English, particularly 10th graders, are in with regard to the 12 linguistic forms of English most frequently dealt with in English textbooks in Korea. To achieve this aim, this study measured the subjects' implicit and explicit knowledge of the forms. The result shows that the former is far less acquired than the latter. This suggests that the subjects be given more exposure to English communicative contexts.

주제어(Key Words): 묵시적/명시적 문법 지식(implicit and explicit grammatical knowledge), 중간언어(interlanguage), 언어형식(linguistic forms), 언어습득(language acquisition)

1. 서론

본 연구는 영어 문법구조의 지식 정도를 측정해봄으로써 한국 영어학습자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영어습득 정도 즉 영어 중간언어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의식적으로 자각하며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영어지식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묵시적 영어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분석한다. 묵시적 영어지식은 영어학습자의 표현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Hulstijn, J. *et al*.., 1994, Ellis, R. 1994)[1].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진현석 (20011)의 학위 논문에 근거하여 재작성 되었음. 본 논문을 심사하고 귀중한 조언을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1) R, Ellis (1994:359)는 명시적 및 묵시적 지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In all of these studies explicit knowledge was equated with learners' oral or written

이를 위하여 한국 고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자들의 영문법 습득정도를 분석하였다. 영문법 습득정도는 Ellis, R. (1993, 2006)의 방식을 따라 명시적 문법지식과 묵시적 문법지식을 측정하였다. 실험대상 학생들은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4개 고등학교 1학년 120명이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영어교과에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12개 언어형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명시적 문법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12개 영문법형식의 오류가 담긴 문장이 제시되었으며 그 오류의 이유를 우리말로 기술하게 하는 문항지를 사용하였다. 묵시적 영문법지식을 측정을 위하여 학생들이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먼저 이 12개 언어형식이 들어 있는 문장을 듣고 그 전달된 내용에 대한 세상 지식적 판단을 하고 그 문장을 다시 받아쓰게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론적 배경', 둘째, '연구 문제 및 방법', 셋째, '연구결과 분석 및 토론',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그 결론에 따른 몇 가지 영어교육적 제언을 한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지 및 생성 언어이론

인간의 특성 중 다른 종의 동물의 것과 구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언어능력이다. 이 인간의 언어능력은 다른 인지능력과 구분되며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주어진다는 입장을 취하는 생성 언어이론 학자들이 (Chomsky 1972; Krashen 1981) 있는 반면에 인간의 언어능력은 다른 인지능력과 구분할 수 없으며 일반 인지능력의 한 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Fillmore (1982), Langacker (1990)와 같은 인지 언어학자들도 있다.

제 2언어 습득 측면에서 보면 생성 언어이론자는 단지 자연스런 제 2언어인 목표어의 입력만 있으면 모국어에서처럼 해당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Ellis, R. 1994; Krashen 1981) 반면 인지론자는 제 2언어의 습득도 다른 인지적 능력을 터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진영의 학자들은 외국어 학습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방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생성 언어학적 입장 (Krashen, 1981)은 언어형식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거나 연습을 통해서 언어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어의 습득은 그 언어의 입력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때로는 그 입력된 자료의 형식을 관찰함으로써 그 목표어를 습득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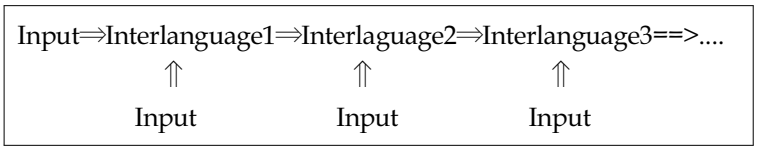
---

explanation of grammatical rules, while implicit knowledge was determined by examining the learners's use of the same grammatical features in some kind of performance."
상기의 인용에서 언어행위 수행 (some kind of performance)은 표현행위에 의해서 대체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묵시적 언어지식은 수동적인 이해능력보다는 표현능력과 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도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문법요소를 가르치거나 배워서 습득(acquisition)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Chaudron (1985)과 같은 인지 언어학적 입장은 제 2언어 혹은 외국어의 습득은 다양한 전략으로 해당 언어의 문법요소를 학습하는 연속적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문법요소의 명시적 학습이 해당 언어의 습득에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제 2언어의 습득은 해당 목표어의 입력을 통해 끝임없이 학습자가 해당 언어의 문법 혹은 언어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제 2언어습득에 대한 인지 언어학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Selinker (1972)의 중간언어이론 모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림 1. Selinker (1972)의 중간언어이론 모형



중간언어 (interlanguage)는 언어학습자의 목표언어에 대한 해당 시점의 지식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의 지식과 비교해보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과도기적 목표언어 지식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도기적 지식으로 구성된 언어체계는 언어적 실수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언어적 실수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당 언어의 교수 학습적 측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2)]

2.2. 명시적지식과 묵시적 지식

중간언어이론의 핵심은 목표언어 규칙들이 습득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수정-보완이 가능한 중간적 상태들이 언어학습자의 심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학습 시 목표어의 입력은 자연적인 노출일 수도 있고 명시적인 학습 (formal instruction)일 수도 있다. Dienes, Z. and Perner, J. (1999:741)은 인간의 지식을 다음과 같은 특성을 중심으로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의식적인 통제(conscious or voluntary control)를 할 수 있으며, 언어로 직접적으로 기술(verbal or direct predication)이 가능하며, 선언적인 (declarative) 지식에 해당된다. 반면 후자는 무의식적이며 통제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적 (procedural) 지식을 의미한다.

2) Krashen (1993:725)은 목표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상태가 해당 언어형식을 습득할 단계에 이르지 않은 자에게 명시적인 문법교육(grammar instruction)은 전혀 목표어 습득에 접근할 수 없음을 "peripheral and fragile"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목표어 언어지식도 명시적 문법지식과 묵시적 문법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3] 명시적 문법지식은 언어습득자가 자각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말로 구체적으로 그 문법지식을 상술할 수 있어 매우 명시적이다. 반면 묵시적 문법지식은 그 지식자체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으며, 말로 명시적 기술이 어렵고,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로 적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유형의 언어지식 습득에 대하여 인지론자들과 생성 언어론자들은 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Ellis, R. 1993; Hulstijn, J. and de Graaff, R. 1994). 먼저 생성 언어이론을 대표하는 Krashen (1981, 1982, 1985), Truscott (1996, 1998)[4]과 같은 학자들은 명시적 문법지식의 학습(learning)으로 묵시적 문법지식의 습득(acquisition)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Krashen이 습득 (acquisition)과 학습(learning)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습득은 학습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는 지식상태가 아니다. 제 2언어 학습자는 단지 학습한 지식으로 목표언어를 관찰 (monitering)만 할 수 있지 진정한 습득으로 이르지는 못한다. 즉, 명시적인 문법 수업이 해당 언어학습자들이 언어능력 (linguistic competence)를 습득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해당 목표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쉽게 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와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명시적 학습과 묵시적 습득 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하지 않고(non-interface position) 있다.

인지론적 입장에서 보면 위의 비상호작용적 입장과는 달리 제 2외국어인 목표어 문법형식의 명시적인 학습이 Krashen의 습득(acquisition)에 해당하는 언어지식의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인지론자들이 대체로 두 유형의 문법지식이 적절한 환경이 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명시적 문법지식이 묵시적 문법 지식으로 변환한다는 상호작용적 입장(interface position)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5] 이런 입장에서 Gass (1988:205-7)는 목표어에 대한 명시적 문법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이들이 다시 연습과 강화를 통해 묵시적인 언어지식으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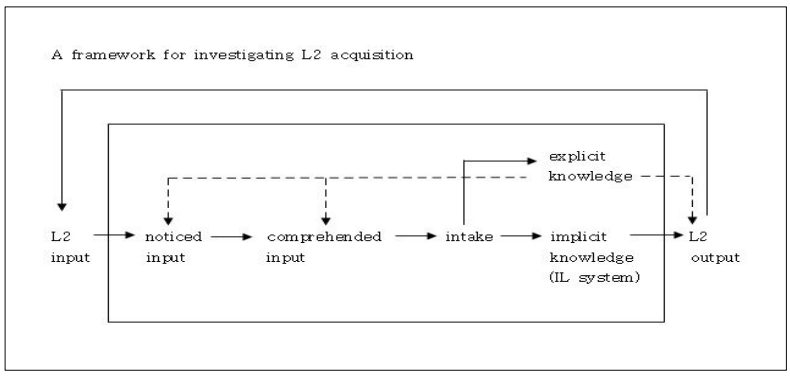
3) Ellis, R.. (2006:433-434)는 명시적 문법지식의 표상적 특성(representational features)으로 자각적, 절차적, 체계적인 면을 들고 있다. 반면 묵시적 문법지식의 특성으로는 비자각적, 선언적, 비체계적인 특성을 들고 있다. 한편 처리적 측면 (procesural features)에서 묵시적 문법지식은 비접근적 (nonaccessible)이며 즉시성이 있는 반면 명시적인 문법지식은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사용 시 비즉시성이 있어 의식적으로 그 지식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Truscott (1998:120)에서 문법지식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의 무용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첫째, 목표어에 대한 문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쳐도 기억에 오래 남아있지 않아 진정한 목표어 지식이 될 수 없다. 둘째, 명시적인 문법 수업 후 시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지식을 측정하여 상당히 훌륭한 점수 결과를 얻었더라도 그 것은 명시적인 문법지식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언어지식이라 할 수 없다.

5) Ellis, N. (2002:175): “the slow acquisition of form-function mappings and the regularities therein. This skill, like others, takes tens of thousands of hours of practice, practice that can not substituted for by provision of a few declarative rules."

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llis, R. (1994:349) 는 이와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림 2. Ellis, R의 제 2언어 습득 모형



위 도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목표어에 대한 습득은 목표어 학습자가 새로이 학습한 문법지식을 학습자의 중간언어 (interlanguage)에 수용(accommodating)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 문법지식을 동원될 필요가 있는 자연스런 의사소통의 기회가 충분해야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새로이 학습한 문법지식은 묵시적인 문법지식으로 전환되어 해당 언어형식에 대한 언어직관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3. 문법지식 측정 사례

Krashen (1981), Ellis, R. (2006)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은 두 유형의 언어지식 즉, 명시적/묵시적 언어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operationally definable and measurable)는 입장이다. 이 두 언어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Ellis, R. (2006)은 이 두 지식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묵시적 언어지식 측정을 위하여 Oral Imitation Test, Timed Grammaticality Judgement Test를 사용하였으며 명시적 언어지식 측정을 위하여 Untimed Grammaticality Test와 Metalinguistic Knowledge Test를 사용하였다. Oral Imitation Test는 원래 Naiman (1974)의 elicited imitation test를 수정한 것이다. 이 검사지는 목표어의 문법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법/비문법적인 진술문을 피검사자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게 하여 녹음을 하여 얼마나 해당 문법형식을 포함한 표현을 잘 말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술문을 단순히 듣고 따라 말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단계도 설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따라 말하는 것을 배제하

고, 실제 언어능력에 의존하여 들었던 표현과 목표 문법형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한편 Timed Grammaticality Test는 68개(34개 정문과 34개 비문) 문장을 컴퓨터 화면에 제시하여 정문과 비문을 정해진 시간 내 판단하게 하였다. 이 시간제한은 원어민이 답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에 20%의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정했다.[6] 이 시간제한을 두는 이유는 묵시적인 언어능력의 처리적 차원에서의 즉시성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명시적 문법지식의 측정을 위하여 Untimed Grammaticality Test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컴퓨터로 실시하였으며 피시험자들은 특별한 시간적인 제약 없이 각 검사지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하였다. 피시험자들은 몇 차례의 예시문항을 푼 다음, 본 문항을 풀게 하였다. Metalinguistic Knowledge Test는 17개 문법형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시험자는 각 문항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진 규칙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다.[7] 이 실험도구의 문항을 푸는데 시간적 제약은 없으며 명시적으로 해당 문법규칙을 제시하였고 그 가운데 고르게 했다는 점에서 선언적 지식인 명시적 (문법)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3. 한국 영어학습자의 영어지식 측정

3.1. 연구과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영어습득 정도를 명시적 영문법과 그에 상응하는 묵시적 영문법 습득 정도를 측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Ellis, R. (2006)처럼 한국 영어학습자의 영어 지식을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 뿐만 아니라 명시적 영어지식 수준이 그에 상응하는 묵시적 영어지식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 하에 본 연구는 한국 영어학습자의 영어습득 즉, 묵시적 영어지식의 습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영어의 특정 언어형식에 대하여 명시적 지식수준과 묵시적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

6) 실제 허용한 제한 시간은 문항당 1.8초에서 6.24초까지로 하였다 (Ellis, R. 2006:445 참조)

7) 다음은 Metalinguistic Knowledge Test의 한 실례이다.(Ellis, R. 2006:446 참조)

You must to wash our hands before eating:

(ⅰ) 'Must to' is the wrong form of the imerative.

(ⅱ) Change to 'must have to wash' to express obligation.

(ⅲ) Modal verbs should never be followed by a preposition.

(ⅳ) After 'must' use the base form of the verb not the infinitive.

2. 어떤 영어 언어형식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측면에서 가장 잘 혹은 덜 습득 되었는가?

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험을 실시한다.

3.2. 예비실험 (pilot test)

위의 연구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본 실험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예비실험을 위하여 본 실험의 피실험자와 동일 학년인 대구 K-고 1학년 10명과 경북대 어학교육원 원어민 3명을 선별하였다. 이 예비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았다. 본 실험에 사용할 명시적 문법지식 측정 검사지의 문항의 평균 단어 수가 적정한지를 실험하였다.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문항 당 평균 단어 수를 9 내지 12 단어로 구성하였다.[8] 그리고 이와 같은 수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둘째, 부록 1의 36문항을 50분 내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묵시적 문법지식 측정 검사지의 각 문항에 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얼마로 잡아야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부록 3의 검사지를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 원어민 3인을 대상으로, 각자가 36문항의 답을 완성하는데 걸린 평균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평균시간에 30%시간을 더한 시간을 문항 간 설정하여 부록 3의 검사지를 녹음한 다음 이를 K-고 10명에게 실시하여 각 문항에 배당된 시간의 길이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예비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실험에 대하여 피실험자 10명중 8명이 문항의 길이에 별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 피실험자의 7명이 50분 내 모든 문항에 답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답을 하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 원어민 3명이 부록 3의 검사지 문항에 모두 답하는데 평균 69분이 걸렸으며 여기에 30%의 시간을 더한 90분으로 구성한 묵시적 문법지식 측정 검사지에 대하여 K-고 10명의 반응은 '그저 그렇다'였다.[9]

원어민들의 명시적 문법지식 검사지의 측정 결과 평균 점수는 33.33점, K-고 10명의 평균 점수는 26.64점이었다. 한편 묵시적 문법지식 검사지 측정 결과 평균 점수는 원어민의 경우 35.66점이었으며 K-고 10명의 평균 점수는 8.23점이었다. 명시적 문법지식은 원어민과 K-고 학생의 평균점수가 6.69점 차이 나는 반면 묵시적 문법지식의 평균점수 차이는 28.97점으로 매우 컸다.

---

8)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 문장 당 평균 단어 수는 9에서 11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신희숙 2000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검사지의 각 문항의 문장을 평균 9-12 단어로 구성하였다.

9) Ellis, R. (2006)에서는 문항 간 시간을 20% 널려 잡았으나 본 연구의 피실험자에게 답안을 기입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의 길이를 설문한 결과 원어민의 경우 보다 30% 정도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 예비실험 설문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0 (아무 문제 없다) – 1 (별 문제 없다) – 2 (그저 그렇다) – 3 (문제가 약간 있다)
– 4 (문제가 많다) – 5 (문제가 아주 많다)

이런 예비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본 실험에 사용할 검사지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첫째, 이 예비실험 검사지 문항을 그대로 본 실험의 검사지 문항으로 사용한다. 둘째, 명시적 문법지식을 측정하는 검사지는 그 문항과 실시 시간을 예비실험에 사용한 명시적 문법지식 측정 검사지의 것과 같이 한다. 셋째, 묵시적 문법지식 측정 검사지 문항 간 시간을 2.75분으로 조정하여 문항을 구성한 검사지를 사용하기로 한다.

3.3 본 실험

3.3.1. 실험 대상, 도구 및 실시 방식

실험 대상자는 대구와 경북소재 고등학교 학생 1학년 130명이었다. 이들 피실험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영어 수업을 받은 학생들로 공교육에서 영어를 8년째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다.

실험에 사용된 도구는 모두 질문지 형태였으며 피실험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크게 명시적 문법지식을 평가할 시험지(Explicit Test)와 묵시적 문법지식을 평가할 시험지(Implicit Test)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질문지는 (1)과 같은 12개 영문법 형식의 습득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12개 영문법 형식은 현재 사용중인 중3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중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에 도입된 순서에 따라 3단계 즉,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다.[10].그리고 각 단계별로 나누어진 문장 구조 중 4구조씩 선택하여 12개의 문장 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구조에서 3문항씩 문제를 구성하여 각 문제지 당 총 문항의 수는 36개가 되도록 했다.

(1) a. 초기: *be*-동사, 가산명사, 일반동사 과거형, 수동태
b. 중기: 현재완료 진행형, 사역동사, *there*-존재구문, 서법 조동사, *can, will, may*
c. 후기: 수여동사, 빈도부사 *It~that*분열문, 목적격 관계대명사

검사지를 구성하는 방법은 형태론(morphological)적인 오류가 있는 문항과 통사적(syntactic)인 오류가 있는 문항으로 반반씩 구성하였다.[11] 각 문항의 문장의 단어는 9-12개 사이가 되도록 하여 전체가 비슷한 길이의 설문지가 되도록 하였다. 문제를 만드는 구체적인

10) 이 순서의 결정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전공 34명의 학생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이 순서가 본 논문의 연구과제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으나 언어형식의 도입순서는 해당 언어학습자들이 이 형식을 명시적으로 배운 후 얼마간의 연습 기간이 지나면 해당 언어형식에 대하여 묵시적인 문법지식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려는 연구에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이 순서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대략의 설문을 통하여 정하였으며 이를 편의상 참고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11) 형태적 오류와 통사적 오류 문항은 부록 1을 참조할 수 있다.

내용과 방식, 그리고 실험 절차는 명시적 문법 지식과 묵시적 문법지식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달리하였다.

먼저, 명시적 학습 시험지에는 총 12개의 문장 구조를 반으로 나누어 6개의 문장 구조는 형태론적인 오류가 있는 문장을 만들고 나머지 6개는 통사적인 오류가 있는 문장을 만들었다.[12]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이 해당 언어형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법적 오류가 있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할 때 피실험자들에게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고 그 이유를 우리말로 명확히 기술하게 하였다. 이는 명시적 문법의 특성인 언어적 기술성 측면에서 명시적 문법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시적 문법지식의 측정을 위하여 Ellis, R. (2006)는 피험자들이 문항에 답할 때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 문항 당 평균 1.5분을 피험자들에게 허용하였다.[13]

한편 묵시적 문법지식 측정을 위하여 검사지를 구성했는데 그 검사지는 명시적 문법지식 측정 검사지와 문항 구성 비율과 방식은 같으나 그 내용과 검사 절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각 문법 형식마다 한 가지의 공통된 특정 소재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명시적 문법지식 검사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문장이 인쇄되어 있는 검사지가 아니라 그들의 의견(Agree, Disagree, I don't know)을 표시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이 문장을 적을 수 있는 빈 칸만 제시되었다. 이처럼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한 피실험자들의 견해를 묻는 부분을 가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견해를 묻는 부분에서 자신이 가진 믿음과 각 문항이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게 하여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면, 단순히 단기 기억장치에 의존하여 들었던 음성정보만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항은 진정한 의미의 언어적 재구성능력 즉, 묵시적인 언어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 도구를 만들기 위해, 묵시적 학습 실험에서 사용할 듣기 자료를 만들고 검사 제한시간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항 간 2.75분으로 설정하였다. 만들어진 실험 대본을 가지고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이 직접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다. 그리고 그 녹음이 된 듣기 자료를 가지고 영어가 모국어인 일반인에게 시험지를 주고 모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사람이 걸린 시간의 130%를 한국인 학습자가 실험할 때 갖는 제한시간으로 설정했다. 이 실험에서 먼저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 실험자의 시간이 약 69분이 나왔고, 그 시간의 130%인 약 90분을 한국인 학습자의 제한시간으로 설정했다.

---

12) 어떤 특정 언어형식에 대한 문법지식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어휘 항목(lexical item)을 알고 있다는 말은 그 어휘 항목의 lexical entry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태론적 지식과 통사론적인 지식, 두 측면을 중심으로 문법형식 습득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13) 문항 당 평균 시간을 1.5분 허용한 것은 1시간 내에 검사지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묵시적 학습 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명시적 학습 실험보다 좀 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실험 대상자들에게 시험지의 각 문항마다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다음, 듣고 이해한 대로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의 시험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하지만 검사 문항지를 풀 때에는 꼭 자신의 의견에 먼저 표시를 하고, 들은 내용을 나름대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숙지시켰다.

3.3.2 문항 채점 및 결과

각 실험 실시 후 시험지의 채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명시적 학습 시험지는 잘못된 해당 언어형식을 맞게 고치고 그 이유를 정확히 함께 적은 답을 정답으로 하였고, 정확한 설명은 없어도 정확하게 고쳐 놓은 경우도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정확하게 고쳐 놓았으나 그 이유를 틀리게 적은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묵시적 학습 시험지에서는 받아쓴 문장에서 그 문항에 맞는 target form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경우를 정답으로 하였다. 해당 언어형식이 빠져있거나 문법적으로 옳지 않게 적은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였고 해당 언어형식이외에 다른 단어들은 채점에서 제외하였다.

채점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 4명이 하였으며, 명시적/ 묵시적 문법지식 검사 문항지 채점에 각각 2명 씩 투입되었다. 예비 실험에 참여한 13명(원어민 3명과 K-고 10명)의 검사결과 채점 시 채점에 들어가기 전 명시적/묵시적 문법지식 검사 문항지를 각각 3매 채점하여 위의 채점원칙이 서로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비교하게 하였으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정하여 채점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명시적 문법지식 검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우선 학교별 점수를 보면 D학교의 성적이 가장 우수한데 정답률이 대략 74%에 달했다. 한편 A학교는 45%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131명 피실험자들의 정답 평균은 64%이다.

표 1. Explicit 학교별 평균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전체평균
0.453405	0.637963	0.737037	0.739316	0.64193

한편 묵시적 문법지식 검사 결과의 학교별 평균과 전체 평균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 2. Implicit 학교별 평균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전체평균
0.067204	0.155556	0.440741	0.279655	0.235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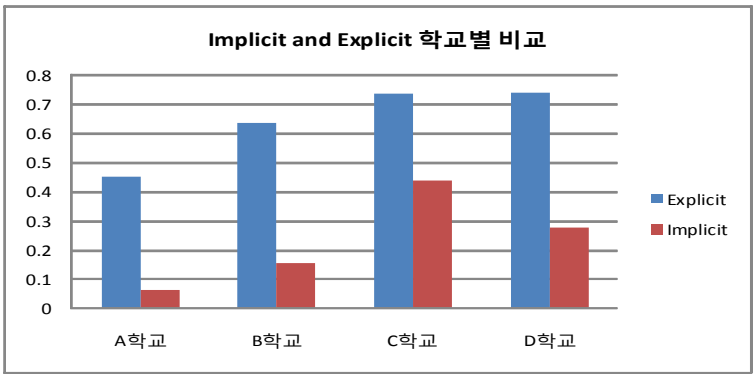
그리고 위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학교별 명시적 및 묵시적 문법지식 검사 결과를 한꺼번에 비교해볼 수 있다.

표 3. Explicit vs Implicit 학교별 비교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Explicit	0.453405	0.637963	0.737037	0.739316
Implicit	0.067204	0.155556	0.440741	0.279655

이를 좀 더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막대그래프로 아래와 같이 나타내보았다.

그림 3.



(1)에서 언급한 본 실험에 사용된 12개 영어 언어형식에 기초한 총 36문항의 명시적/묵시적 검사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명시적 문법 지식

문항 No.	각 문항 당 점수 (총130점)	각 문항 당 평균	**문항 No.**	각 문항 당 점수 (총130점)	각 문항 당 평균
Q1	104	0.8	**Q19**	95	0.730769
Q2	69	0.530769	**Q20**	62	0.476923
Q3	118	0.907692	**Q21**	114	0.876923
Q4	102	0.784615	**Q22**	92	0.707692
Q5	2	0.015385	**Q23**	119	0.915385
Q6	102	0.784615	**Q24**	87	0.669231
Q7	111	0.853846	**Q25**	73	0.561538
Q8	78	0.6	**Q26**	117	0.9
Q9	99	0.761538	**Q27**	113	0.869231
Q10	98	0.753846	**Q28**	8	0.061538
Q11	117	0.9	**Q29**	69	0.530769
Q12	22	0.169231	**Q30**	106	0.815385
Q13	42	0.323077	**Q31**	99	0.761538
Q14	103	0.792308	**Q32**	5	0.038462
Q15	78	0.6	**Q33**	108	0.830769
Q16	94	0.723077	**Q34**	95	0.730769
Q17	92	0.707692	**Q35**	102	0.784615
Q18	60	0.461538	**Q36**	74	0.569231

표 5. 묵시적 문법 지식

문항 No.	각 문항 당 점수 (총130점)	각 문항 당 평균	**문항 No.**	각 문항 당 점수 (총130점)	각 문항 당 평균
Q1	31	0.238462	**Q19**	28	0.215385
Q2	43	0.330769	**Q20**	25	0.192308
Q3	22	0.169231	**Q21**	20	0.153846
Q4	0	0	**Q22**	19	0.146154
Q5	27	0.207692	**Q23**	10	0.076923
Q6	60	0.461538	**Q24**	26	0.2
Q7	37	0.284615	**Q25**	16	0.123077
Q8	39	0.3	**Q26**	4	0.030769
Q9	1	0.007692	**Q27**	94	0.723077
Q10	25	0.192308	**Q28**	33	0.253846
Q11	47	0.361538	**Q29**	0	0
Q12	33	0.253846	**Q30**	31	0.238462
Q13	29	0.223077	**Q31**	30	0.230769
Q14	40	0.307692	**Q32**	34	0.261538
Q15	6	0.046154	**Q33**	17	0.130769
Q16	56	0.430769	**Q34**	56	0.430769
Q17	81	0.623077	**Q35**	50	0.384615
Q18	7	0.053846	**Q36**	22	0.169230

위 두 표의 자료를 바탕으로 (1)에 언급한 12개 영어 언어형식 별 각 문항의 평균 정답률과 어느 언어형식이 가장 혹은 덜 학습되었는지를 순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명시적 검사지 언어형식별 문항 평균정답률 (단위 1점)		묵시적 검사지 언어형식별 문항 평균정답률 (단위 1점)	
structure	평균	순위	평균	순위
be-동사	0.872	1	0.285	2
가산명사 *-(e)s*	0.697	6	0.272	3
일반동사 과거형	0.628	7	0.164	10
수동태	0.423	11	0.123	11
현재완료 진행형	0.538	9	0.210	8
사역동사	0.554	8	0.254	4
there-존재구문	0.536	10	0.603	1
서법 조동사 *can, will, may*	0.856	3	0.231	6
수여동사	0.759	4	0.254	5
빈도부사	0.897	2	0.192	9
It~that 분열문	0.038	12	0.013	12
목적격 관계대명사	0.738	5	0.218	7

위 표 4, 5의 12개 언어형식 유형별 명시적 문법지식의 학습된 정도와 묵시적 문법지식의 습득 정도를 비교해보면 *there* -존재구문의 습득이 묵시적 문법지식에서 가장 잘 습득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명시적 문법지식에서는 거의 하위 무리에 속해서 열 번째 순위를 보인다. 그에 반하여 *It ~that* 분열문은 명시적 문법지식 검사에서도 묵시적 문법지식 검사에서도 가장 덜 학습된 문법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명시적 문법지식 검사결과 가장 잘 학습된 것으로 분석된 *be*-동사 현재형은 묵시적 문법지식 습득에 있어서도 역시 상위 순위인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 단계 차이를 보이는 문법유형은 '현재완료진행형', '수여동사'가 있다.

3.3.3.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연구의 과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연구 질문으로 되어있다. 우선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것부터 논의해보자. 이 질문의 근거는 언어학습자의 문법지식이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으로 구분 가능하며, 따라서 이 두 지식은 또한 측정 가능하다는 이론적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현재로선 찾을 수 없었지만 본 연구의 피실험자들 즉,

대구지역 고등학교 1학년 130명의 영어학습자들의 명시적 영어문법지식과 묵시적 영어문법지식이 본 실험결과 자료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명시적 문법지식과 묵시적 문법지식 검사 결과의 전체 평균

	Explicit	Implicit
평균점수	0.6255	0.234917

본 연구에서 피실험자의 두 문법지식 간 차이는 명시적 문법지식이 묵시적 문법지식 보다 두 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상호 작용적 입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먼저 명시적으로 학습된 문법지식이 이후의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묵시적 문법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시적 지식이 묵시적 지식보다 많이 그리고 먼저 학습되었고 본 실험결과 역시 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자. 표 6의 두 순위 부분을 비교해보면 명시적으로 가장 잘 학습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be*** 동사 현재형의 쓰임이며 가장 덜 학습된 문법유형은 ***It-that*** 분열문이다. 한편 묵시적 문법지식의 경우 ***there* -존재구문**이 가장 잘 습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시적 문법지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It-that*** 강조구문이 가장 덜 습득된 것으로 판단된다. ***be***동사의 현재형 쓰임은 명시적 문법유형과 묵시적 문법유형에서 공히 잘 습득된 문법지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It-that*** 분열문에 이어 가장 묵시적 문법지식으로 전환되기 힘든 언어형식은 수동태와 일반 동사 과거형이다. 하지만 표 6이 보여주듯이 명시적 문법지식 습득 순위에서 상위라고 해서 반드시 묵시적 문법 습득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들 언어형식의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

표 6에 제시된 학습 내지 습득 순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It-that*** 분열문의 경우, 명시적 문법지식과 묵시적 문법지식 검사에서 모두 가장 덜 습득 내지 학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규칙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데 다른 문법형식에 비해 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It*과 *that* 사이에 올 수 있는 통사구성소와 올 수 없는 통사구성소를 기술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즉,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둔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강조'

14) Krashen (1982)는 단지 형식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매우 단순한 규칙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R. Ellis, R. (2006:435)은 언어형식의 습득 난이성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1. 언어입력에 출현 빈도, 2. 언어입력에 나타나는 현저성(saliency), 3. 언어입력에 관찰될 수 있는 규칙성(regularity), 4. 처리성 (processability). 이 처리성은 그 구조가 복잡할수록 어려워지고 따라서 습득도 늦다고 할 수 있다.

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기술하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Pienemann (1999)의 주장처럼 ***It-that*** 분열문은 다른 언어형식에 비해 처리(processing procedure)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이 문법형식은 명시적으로 학습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묵시적 문법지식으로 전환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빈도부사의 경우 명시적으로 기술하기는 비교적 수월하다. 즉,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 혹은 조동사 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 조동사와 일반동사의 구분이 *be*-동사, *have*-동사와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동사를 일반동사 혹은 조동사 어느 것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빈도부사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묵시적인 문법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there*-존재구문 유형이다. 이 구문에 있어 *be*-동사 단복수형의 구별은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꽤 어렵다. 명시적인 문법으로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의미상 주어가 단수이면 *is*, 복수이면 *are*를 사용한다." 여기서 "의미상 주어"란 개념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단수, 복수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가령 *an orange and an apple*이 의미상 주어로 주어졌을 때, 이를 단수로 취급해야할지 복수로 취급해야할지 애매하다. 의미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복수이지만 형태적으로 판단하면 단수이다. 따라서 ***there***-존재구문 유형은 명시적으로 그 문법을 기술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문이라 할 수 있고, 이 학습정도는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실험결과도 이와 같다. 하지만 일단 이런 명시적 학습이 이루어지면 *Be*동사의 경우처럼 매우 기계적으로 *is* 혹은 *are*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묵시적인 문법지식으로 전환이 쉬울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실험결과도 그렇게 되어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학습자 특히 한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2가지 영어 언어형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영문법지식을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명시적 문법지식의 학습정도가 묵시적 문법지식의 습득정도보다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역시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순서별로 그 학습 내지 습득정도도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명시적인 문법 학습정도와 묵시적인 문법 습득 정도의 차이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실력 즉 묵시적 언어지식 수준이 많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언어능력은 이 묵시적인 언어지식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시간의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방향은 표현력 향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영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묵시적인 문법지식의 습득정도를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신희숙. (2000).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의 비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진현석. (2011). *명시적 및 묵시적 영문법지식 측면에서 본 한국 고등학교 1학년의 영문법습득 실태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Chaudron, C. (1985). Intake: On models and methods for discovering learners' processing of inpu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7, 1-14.

Chomsky, N. (1972). *Language and mind.* Harcourt Brace Jovanovich.

Dienes, Z.. & Perner, J. (1999). A theory of implicit and explicit knowledg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 735-808.

Ellis, N. (2002). Frequency effects in language processing: A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implicit and explicit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 143-188.

Ellis, R. (1993). The structural syllabu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27*(1), 91-113.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llis, R. (2006). Modelling learning difficulty and second language proficiency: The differential contributions of implicit and explicit knowledge, *Applied Linguistic,s* 27(3), 431-463.

Fillmore, C. J. (1982). Frame semantic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111-137.

Gass, S. (1988). Integrating research areas: A framework for second language studies, *Applied Linguistics,* 9, 198-217.

Hulstijn, J.H., & de Graaff, R. (1994). Under what conditions does explicit knowledge of a second language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implicit knowledge? A research proposal, *AILA Review,* 11, 97-114.

Krashen, S.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Press.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Krashen, S.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Press.

Krashen, S. (1993). The effect of formal grammar teaching: Still peripheral, *TESOL Quarterly,* 27, 722-725.

Langacker, R. W. (1990).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Mouton de Gruyter.

Naiman, N. (1974). The use of elicited imit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2, 1-37.

Pienemann, M. (1999). *Language, processing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Processability theory.* Amsterdam: Benjamins.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209-231.

Truscott, J. (1996). The ease against grammar correction in L2 writing classes, *Language Learning,* 46, 327-369.

Truscott, J. (1998). Notic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critical review, *Second Language Research,* 14, 103-135.

<부록 1> 명시적 문법 지식 측정 문항지

Questionnaire

여러분! 이 문제지는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성실히 풀어주세요. 아는 대로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시간: 54분)

Direction: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잘못된 영어 표현입니다. 그 영어 표현의 올바른 답과 함께 문법적으로 잘못된 이유를 한국말로 간결하게 적으세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면 될 수 없는 이유만 적으면 됨.)

<보기>

1. My father let me ***went*** to see a doctor yesterday.
   ☞ let이 사역동사이고 목적어 me의 목적격보어는 원형부정사인 go로 바꾸어야 한다.
2. I ***play sometimes*** basketball with my friend at the Central Park.
   ☞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와야 하므로 순서를 바꾸어 sometimes play 가 되어야 한다.

1. What really matters ***are*** how you should live now.
2. There an unknown runner ***is*** in the locker room.
3. With some ovals, you ***draw may*** movement of a person.
4. After seeing his performance, I ***gave a big hand him.***
5. It was ***an engineer*** that the poor young man became.
6. Pass me the newspaper which you have read ***it***.
7. I go ***always*** shopping with my friends on sundays.
8. There several birds ***are*** on the oak tree in the park.
9. More than half of the ***leafs*** of the tree fell today.
10. Bell ***invent*** telephone, and it made our life more convenient.
11. 50% of the foreigners in Daegu ***is*** from America.

12. He ***was seen run*** away from the house by the police.
13. A Korean company ***has been develop*** a new delivery system.
14. The teacher made the boys ***to stay*** in after school.
15. We also need three ***potatos*** to make curry and rice.
16. He is looking for the woman that he saw ***her*** in his dream.
17. Jade went to the store to ***buy a doll his daughter.***
18. The doctor ***discover*** the existence of dinosaurs by chance.
19. Gran ***has been watch*** since she came back home.
20. There only a few tall students ***are*** in this classroom now.
21. He ***never*** will forget what happened to his son.
22. Jason called the man whom his sister was talking to ***him.***
23. The floor plan of this building ***are*** on top of his desk.
24. Rain ***release*** his second album last month.
25. We ***have been wait*** for the bus for 20 minutes.
26. You ***choose can*** an interesting place for an impressive trip.
27. He ***always*** was cheerful when he was 7 years old.
28. It is ***violent*** that the furious general made the soldiers.
29. ***Seeing*** from distance, this rock looked like a human face.
30. She lets her children ***to do*** what they want to.
31. ***Never he can*** imagine that she will leave with no reason.
32. It is ***a princess*** that the gracious lady looks like.
33. My brother made me ***fixing*** his new car last Saturday.
34. Some working ***womans*** in Korea usually skip their breakfast to save time.
35. Could you ***make a chair me*** to sit on?
36. Make sure that the computer ***is turn*** off, when you go out.

[The End]

<부록 2> 묵시적 문법 지식 측정 문항지

Questionnaire

여러분! 이 설문은 종전에 여러분이 응했던 것과 연계된 설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설문이므로 아래의 상자 안에 있는 지시사항을(Direction)을 읽은 후 성실히 응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Direction: 다음의 들려주는 문장을 잘 듣고 동의한다면 □ Agree에 체크(∨), 동의하지 않는다면 □ Disagree에 체크(∨), 혹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 I don't know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들었던 문장을 아래 빈 줄에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다시 쓰세요. 각 문장은 한 번씩만 들려줍니다.

(단, 동의여부 체크(∨)를 먼저 한 후, 받아쓰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mple Question)

□ Agree ☑ Disagree □ I don't know

⇒ Small children are always acting badly when they are hungry.

01. □ Agree □ Disagree □ I don't know

⇒ _____

_____

< 중 략 >

36. □ Agree □ Disagree □ I don't know

⇒ _____

_____

[The End]

<부록 3> 묵시적 문법 지식 측정 문항지 대본

Implicit Test Script for Recording

Example) Small children is always acting badly when they are hungry.

01. What John wants to do this Sunday are to jog in the park.
02. We need several pumpkin to make special dinner for thanksgiving day.
03. Normally sons study more than daughters in the past
04. Since Japan mined Sokguram illegally, it requires to mend
05. Reading many books can make young readers thinking wisely and widely.
06. There a big red circle are in the Japanese flag.
07. You watch will a movie with me when you are free?
08. Santa-claus delivers gifts children across the world.
09. It is popular that good-looking girls are at the ski resort.
10. Most people whose blood type is A often are reserved.
11. My mother play can tennis whenever she has free time.
12. People whom we can meet them around the world are always kind.
13. Children send their wish-list Santa-claus which includes Lego-blocks, PLS and the like.
14. Every man whose blood type is B acts always weird.
15. In her free time, may she listen to music.
16. Watching TV make viewers to stop thinking and communicating with family.
17. There three colors is in the French flag.
18. This recipe makes eighteen muffin, and can be easily doubled.
19. When people were heard that Vincent Van Gogh cut his ear, they were surprised.
20. Elder brothers get married earlier than other siblings in the past.
21. Tajimahal which King made for his wife is surrounded all water.
22. It's New York which we can experience various cultural events in New York.
23. Almost all blond girls usually are considered to be stupid.
24.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health have been increased in number.
25. Internet shops let consumers helped to save their time and money.

26. It is perfect that chicken soup is the winter breakfast.
27. There a lot of stars and stripes is in the American flag.
28. London which everyone wants to visit London is a beautiful place.
29. It is homeless that I found him by the looks of his outfit.
30. Parents are buying fancy toys their kids.
31. In that park, a man and his dogs is under the tree.
32. People have been exercised not to be healthy, but to be sexy.
33. Only sons take care of their parents in the past.
34. Some egg that I put in the refrigerator yesterday went bad.
35. The problem that the park has are that the toilets are dirty.
36. People have been used aroma oils in treatments for an alternative medicine.

[The End]

이예식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화: (053)950-5830
이메일: yaesheik@knu.ac.kr

진현석
706-8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34
전화: (053)760-0000
이메일: gsgc9864@hanmail.net

Received on June 28,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23, 2013
Accepted on September 5, 2013